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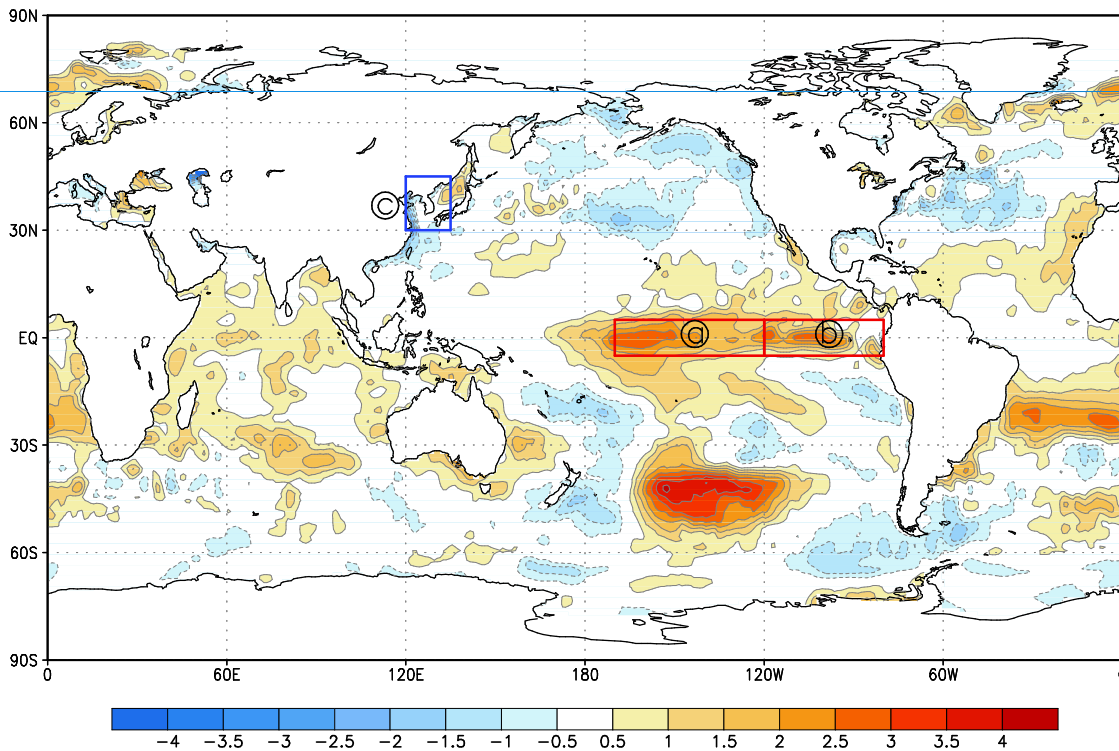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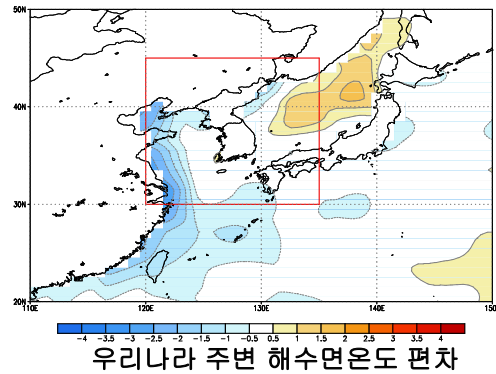


# 이상기후 감시 Update

기상청 기후예측과 <http://www.kma.go.kr>

## ◆ 해수면온도 현황

고수온이 열대 중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엘니뇨 감시구역(ⓐ: Niño 3.4, 5°S~5°N, 170°W ~120°W)의 평균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약 1.9°C 높은 상태를 보였으며, 열대 동태평양 (ⓑ: 5°S~5°N, 120°W~80°W)에서도 평년보다 약 1.3°C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의 해수면온도는 평균적으로 평년보다 약 0.4°C 낮았으나, 동해에서는 다소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해수면온도 편차 (2009.12.20~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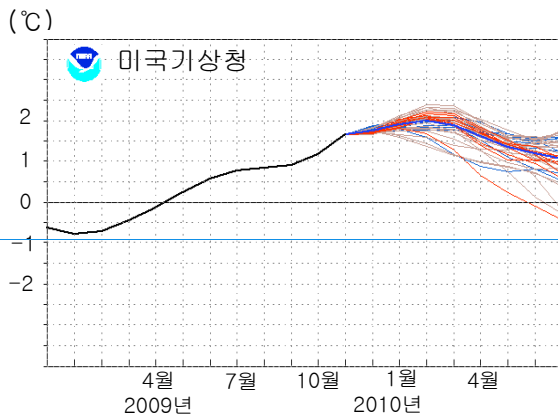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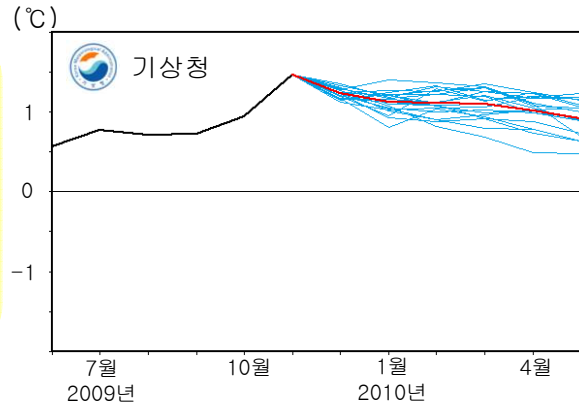
기상청 웹진 '이상기후 감시 Update'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후예측과 (cl\_pre@kma.go.kr)로 구독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엘니뇨 / 라니냐 예측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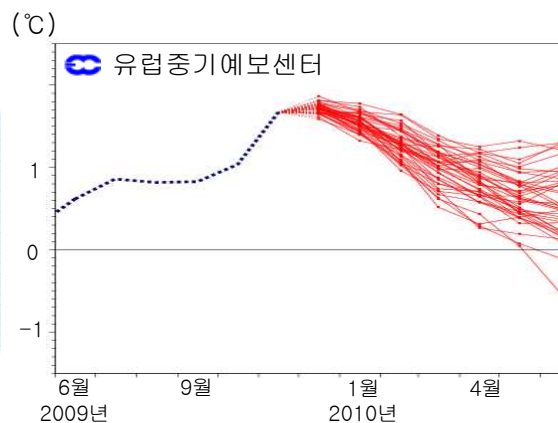
※ 엘니뇨 감시구역 (Niño 3.4 : 5°S~5°N, 170°W~120°W)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의하면, 엘니뇨 현상은 2010년 5월까지 지속되겠으나 세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서는 엘니뇨 현상이 2010년 3월 이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엘니뇨 예측 모델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12월에 최대가 나타난 후, 2010년 1월부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의하면 2010년 봄철까지 엘니뇨가 지속되겠으나 세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의 기상재해 (2009년 12월)



## ◆ 한파/폭설

18~20일 **미국 동부** 연안 지역에 대규모 폭설(61cm 이상)을 동반한 한파로 인해 7명이 숨지고 정전으로 수십만 명이 불편을 겪었으며, 3000여건의 교통사고와 항공편 취소 등의 피해가 있었다.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도 한파를 동반한 폭설로 인해 폴란드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유럽전체 지역에서 80여명이 사망하고 열차운행 중단 및 40%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24일 **미국 중부**를 강타한 폭설은 하루 35cm를 기록하며 4천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악천후 속 성탄절을 보냈다. 특히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가 폐쇄되기도 하였다.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에서 길게 줄지어 탑승수속 중인 승객들(런던-블룸버그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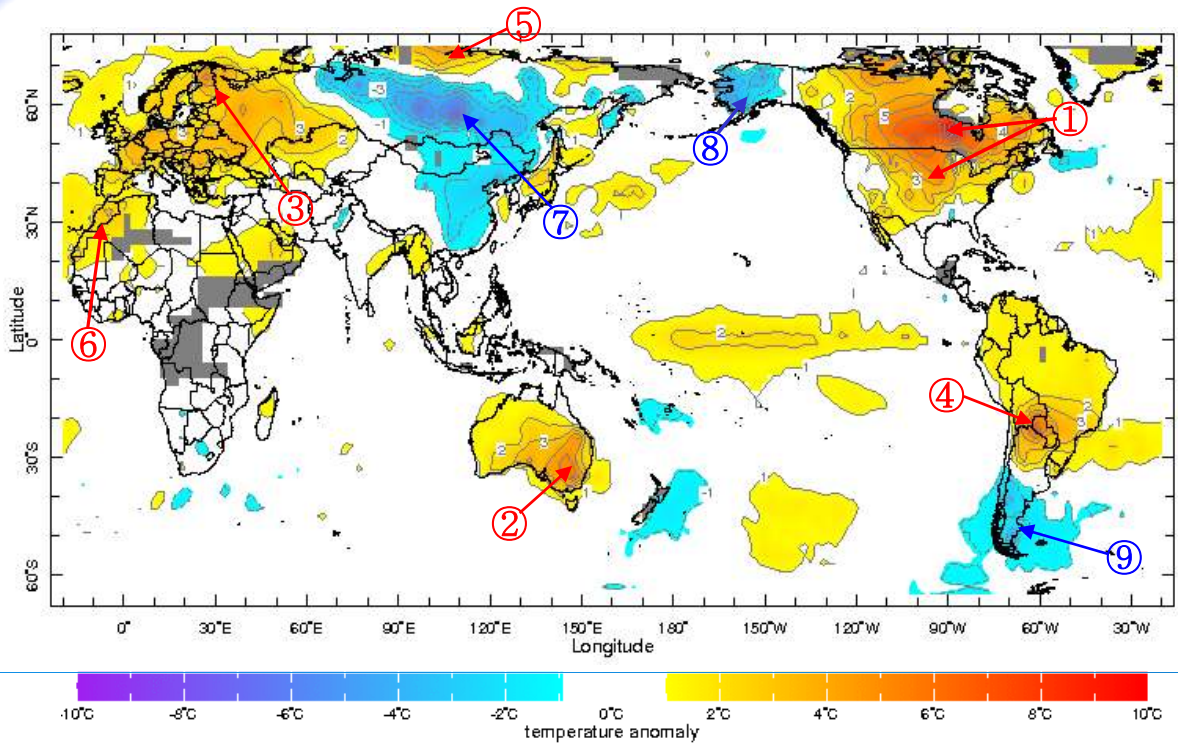
## ◆ 홍수/태풍

4~9일 **브라질** 남부에서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8,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8일 밤에만 12월 총 강수량의 반인 190mm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교통이 마비되고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14일에는 태풍 Mick의 영향으로 **피지**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강한 바람과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15일에는 **미국 남부**에 폭우가 쏟아져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조지아 지역의 도로와 학교가 폐쇄되었다. 뉴올리언스는 하루 180mm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18일까지 630mm를 기록하면서, 1995년 최대 월 강수량인 540mm를 갱신하기도 하였다.

18일 **페루**에서도 홍수로 인하여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기상학자들은 계절적인 강수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강도도 더 강해졌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태평양의 엘니뇨현상을 언급하였다.

# 세계의 기온현황 (2009년 11월)



2009년 11월 기온편차

2009년 11월의 전지구 월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12.9°C, 1901~2000년)보다 0.60°C 높았으며, 이는 1880년 이래 **네 번째 높은** 기온이다. 반구별 월평균 기온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20세기 평균보다 각각 0.61°C, 0.60°C 높았다. 우리나라의 11월 기온은 평년(1971~2000년, 7.5°C)보다 0.4°C 높아 1973년 이래 열여덟 번째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 ★ 고온

북아메리카 대부분(①), 오스트레일리아(②), 유럽 대부분(③), 남아메리카 대부분(④), 러시아 북부 일부(⑤), 아프리카 북서부 일부(⑥) 등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다.

## ★ 저온

아시아 대부분(⑦), 알래스카(⑧), 남아메리카 남부 일부 등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